



- 특집 1 \_ 미 LA 폭동 30주년 기념 행사... 코리아타운서 '화합의 함성'
- 2 \_ 일본 우트로 마을에 화합의 상징 '평화기념관' 개관
- 기획 \_ 내년 세계한상대회 미국 오리엔트카운티서 열린다
- 화제 \_ 드라마 '파친코' 출연 재일3세 박소희 "내 정체성은 자이니치"



# 한민족 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본국-동포사회 유대·협력 강화 기대한다



손세주

재외동포재단 제10기 자문위원장  
(전 주뉴욕대한국총영사)

**최**근에 BTS, 기생충, 오징어게임, 미나리, 파친코 등이 연이어 세계무대를 강타하며 K컬처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감독의 영화로, 이민자 가족이 미국에서 고군분투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을 그려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파친코 역시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쓴 소설로 파란만장한 재일동포들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그려냄으로써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애플TV는 이 소설을 드라마로 제작해 지난 2개월간 전 세계에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두 작품은 한국인 이민자들과 국내 배우들의 합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재외동포와 모국 간 협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180여 개국에 나가 있는 750만 동포들의 자전적 스토리입니다. 우리 동포들은 한민족의 유전자(DNA)인 강인한 끈기와 창의성으로 현지의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장벽 등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리에 정착했습니다. 나아가 본국과 거주국 간 유대와 교류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미국 뉴욕 총영사로 근무하던 때의 일화가 새삼 기억납니다. 2013년 11월 12일 펜실베이니아 주(州) 의회로부터 초청받아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 기회에 한국·펜실베이니아주 관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양측 간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정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주 정부가 극히 소극적이어서 주 상·하원의원들을 동원해 주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마침 현지 태권도 사범을 비롯한 동포 지도자들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한(親韓) 의원들이 결정적 역할을 한 덕분에, 시일은 상당히 소요됐지만, 결국 협정에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우리 유학생과 체류자들이 현지 운전면허시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자가 뉴욕에 근무할 당시 한미관계 증진 활동을 하면서 미국 주류사회와 밀접하게 교류하는 주요 동포 지도자들로부터 큰 도움에 받았던 것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K컬처가 글로벌 무대에 본격적으로 상륙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명실공히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자 문화 선진국이 됐습니다.

재외동포들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공유하며 자긍심을 갖고 현지에서 주류사회 진입과 교류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와 재외동포재단은 물론 민간차원에서도 동포사회와의 유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본국과 동포사회가 상호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장**





- 02 권두언      한민족 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본국-동포사회 유대·협력 강화 기대한다  
손세주 재외동포재단 제10기 자문위원장(전 주뉴욕대한국총영사)
- 04 특집\_1      미 LA 폭동 30주년 기념 행사… 코리아타운서 ‘화합의 함성’
- 06 특집\_2      일본 우토로 마을에 화합의 상징 ‘평화기념관’ 개관
- 08 기획        내년 세계한상대회 미국 오렌지카운티서 열린다
- 10 화제        드라마 ‘파친코’ 출연 재일3세 박소희 “내 정체성은 자이니치”
- 12 한민족 공감      한민족 정체성 상징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 14 글로벌 코리안      ‘김씨네 편의점’ 주연배우, 캐나다 스크린 어워드서 수상 영예  
일본 오사가 재일민단 고문 오룡호, 시 교육문화진흥공로상 수상  
한인 미 연방항소법원 판사 또 탄생 예고… 존 리 판사
- 16 문화유산      전주 경기전, 조선 왕조가 일어난 ‘경사스러운 터’
- 18 지구촌 통신문      미대생 미국 병사의 6·25 그림들… 70년 만에 ‘빛’
- 20 동포소식      미 워싱턴DC 한인들, 우크라 성금 21만 달러 적십자에 전달 외
- 21 동포 캘린더      광주 고려인마을, 우크라 난민 고려인 자녀에 한국 적응 교육 외
- 22 주목! 차세대      재미동포 언론인 2명, ‘그레이시 어워드’ 수상자에 선정
- 23 기고문        해외입양인은 어떤 디아스포라에 속하는가?  
이동현 해외입양인연대(GOAL) 사무총장
- 24 OKF 뉴스      손세주 전 뉴욕총영사 등 20명, 동포재단 자문위원회 위촉 외
- 26 재단공지      2022 재외동포 문학상에 응모하세요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 LA 폭동 30주년 기념 행사... 코리아타운서 '화합의 함성'

## 한인·흑인 단체 손 맞잡고 “우정·희망으로 손 먼저 내밀자”



1



2



3

□ 국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발생 30주년인 4월 29일(현지시간) 한인과 흑인들이 한목소리로 화합을 다짐했다. LA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은 이날 오후 코리아타운 리버티 파크 잔디 광장에서 흑인 단체들과 함께 'LA 폭동, 사이구(SAIGU·4·29) 평화 기원 행사'를 개최했다.

1992년 4월 29일 발생한 LA 폭동은 교통 단속에 걸린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백인 경찰관 4명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지자, 분노한 흑인들이 LA 도심으로 일제히 쏟아져 나와 폭력과 약탈,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다. 흑인들의 분노는 한인 슈퍼마켓에서 흑인 소녀가 총격으로 사망한 이른바 '두순자 사건'과 맞물리면서 한인에게로 분출됐고, 당시 LA 도심에 있

던 한인 타운은 잿더미가 됐다.

기념식은 30년 전 폭동의 상처와 교훈을 되새기며 한인과 흑인 간 연대를 강조하는 인종 화합의 행사로 치러졌다. 한인회, 한인타운청소년회관, 한미연합회(KAC),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연대 LA 지부와 흑인 사회 중심점인 퍼스트 AME 교회, 비영리 흑인단체 LA 어번리그가 이번 행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퍼스트 AME 교회 J. 에드거 보이드 목사는 “한인, 흑인, 백인, 라틴계 모두 여기에 함께 모였다”며 “우리는 공포와 갈등, 파괴 너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번영과 발전, 희망을 위해 함께 모였다”며 “우리는 공통의 유대감과 새로운 우정, 새로운 희망을 찾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안 한인회장은 “30년 전 폭동 당시 충격과 엄청난 피해 때문에 우리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LA 폭동은 한인과 흑인



4



5

간 문제가 아니라 소수민족에 대한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이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웃 커뮤니티와 함께 더불어 잘살기 위해 노력하는 한인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먼저 손 내미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행사에 직접 참석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LA 폭동 30주년을 맞아 한인사회가 타인종, 타민족과 함께 펼치는 평화 기원 콘서트 'Peace Gathering'은 매우 소중하고 각별한 만남과 화합의 장"이라며 "이번 콘서트가 한인인과 라티노, 흑인 및 아시안커뮤니티가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게 하고 치유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잔치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아시안 증오 멈춰라” 함께 외쳐

참석자들은 이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아시안 증오를 멈춰라'(Stop Asian Hate)도 함께 외쳤다. 기념식과 더불어 한인 등 아시아계와 흑인 뮤지션, 아티스트들이 동참해 치유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을 선보였고, 한인인 흑인, 백인, 라틴계 모두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어우러졌다. 행사를 마친 뒤에는 다 함께 인종 화합을 지원하는 도심 행진에 나섰다.

주 LA 총영사관과 문화원도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총영사관은 한국기업 협회(KIT)와 함께 우리 기업이 만든 물품을 LA 현지 사회에 무료로 증정했고, 문화원은 이날 저녁 '플레이포인트 4·29' 콘서트를 개최했다.

문화원 콘서트에는 록밴드 스틸하트의 히트곡 '스위즈 곤'(She's Gone)을 부른 보컬 밀첸코 마티예비치 등이 무대에 올랐다. 피아니스트 조 로튼디는 소리꾼 서연운 선생과 함께 판소리 협업 공연을 펼쳤다.

특히 로드니 킹의 딸 로라 킹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 "아시안 커뮤니티가 인종차별과 증오범죄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 사이의 간극을 이어줄 방법을 찾고 증오범죄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로라 킹은 LA 현지 인권 단체들과 함께 화합을 촉구하는 행사에도 참석했다. 그는 "아버지는 결코 증오나 폭력을 옹호하지 않았다"며 "30년 전 도시가 불타자 아버지는 '우리 모두 함께 잘 지낼 수 없느냐'(Can we all get along)며 평화를 간청했다. 통합은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 한국계 미 연방의원들 “LA 폭동이 남긴 교훈은 결속과 연대”

한편 한국계 앤디 김(민주·뉴저지), 매릴린 스트리클랜드(민주·워싱턴) 미국 연방하원의원도 이날 유색인종 간 결속과 연대를 당부했다. 두 의원은 LA 코리아타운에서 한미연합회(KAC)와 미주한인위원회(CKA)가 공동으로 주관한 차세대 리더십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앤디 김 의원은 LA 폭동이 한인 사회에 남긴 교훈과 관련해 "연대 없이는 이 나라(미국)에서 이를 수 있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것"이라며 "LA 폭동은 한국계 미국인 사회가 더 큰 결속을 해달라는 진정한 요구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친구를 필요로 하기 전에 먼저 친구가 될 필요가 있고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한인 사회가) 다른 공동체와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리클랜드 의원도 "로드니 킹 사건과 LA 폭동은 희망과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많이 화가 나는 것은 지금 미국의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를 항상 갈라놓고 겁주려 하며 우리가 공통점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색인종 공동체가 함께 뭉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더 강해지고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

1. LA 폭동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한인·흑인 할머니
2. LA 폭동 30주년 기념식서 축사하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3. LA 폭동 30주년 기념식서 손 맞잡은 한인인 흑인단체 대표들
4. LA 폭동 30주년 기념 공연에서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흑인들.
5. 한국계 미 연방하원의원 매릴린 스트리클랜드(왼쪽)와 앤디 김

# 일본 우토로 마을에 화합의 상징 ‘평화기념관’ 개관

## 일제 강점기 동원된 재일조선인의 역사 알린다



**일**제 강점기 일본 본토 비행장 건설 과정에서 모인 조선인이 살아 온 ‘우토로 마을’의 역사를 알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우토로평화기념(祈念·기원함)관이 문을 열었다. 일반재단법인 우토로민간기금(대표 곽진웅)은 4월 30일 우토로 마을의 주소지인 일본 교토부 우지시 이세다초 51번지 한쪽에 지상 3층, 연면적 약 461㎡ 규모의 우토로평화기념관을 개관했다.

우토로민간기금은 이날 오전 11시에 기념식을 열었고 오후 1시부터는 일반인을 상대로 개관을 시작했다. 매주 월·금·토·일요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을 열고 화요일에는 단체 관람객 전용으로 운영된다.

조성렬 오사카 주재 한국 총영사는 기념식 축사에서 “아픈 역사와 일련의 시련을 받고 우토로평화기념관이 오늘 무사히 개관한 것은 한국과 일본 많은 분들의 영원 덕분”이라면서 “기념관은 한일 양국 시민들이 함께 협력한다면 두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말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김채영 동포재단 일본 주재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우토로 마을에는 한국



과 일본 사이의 간단치 않은 역사와 한국전쟁 이후 우리 민족 분단의 아픈 현실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우토로평화기념관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한일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토로 마을은 1941년 교토비행장 건설에 재일동포가 강제 동원되면서 형성됐다. 무허가 마을이어서 토지 소유주인 일본 기업이 1989년 주민들의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거주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2004년에는 토지매입자가 강제 철거를 추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주민들이 소송에서 지면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1989년 일본의 양심 세력을 중심으로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이 결성됐다. 이 소식은 한국에도 알려져 ‘우토로국제대책회’가 만들어졌다. 이후 일본인과 한국 시민단체 등의 성금과 2007년 한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주민 재입주 보장을 전제로 일본 정부의 재개발이 추진돼 2018년 1기 시영주택 완공으로 일부 주민이 입주했다. 올해부터 2기 주택 공사가 시작돼 내년에는 남은 주민이 모두 입주하게 된다.



### 관장집 · 수동 펌프 · 차별대우 맞서 싸운 기록 등 전시

이날 개관한 우트로평화기념관의 전시물은 일제 강점기 우트로 마을이 형성된 이유나 이곳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생활상 등을 방문자가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면 1988년에서야 상수도 공사가 시작될 정도로 기반 시설이 열악했다는 점을 실감하도록 주민이 사용했던 모터 펌프나 재래식 수동 펌프를 전시하고 했다.

미일 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와 더불어 일본 국적을 박탈당한 조선인들이 지문 날인 거부 투쟁을 하는 등 차별적 대우와 맞서 싸운 기록도 소개했다. 퇴거 소송을 당한 주민이 송달받은 두툼한 소장 부분은 부동산 계약이나 법을 잘 몰랐던 우트로 조선인에게 사법의 문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하는 자료다. 집이 철거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시위하거나 각계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여러 장 전시됐다.

팽과리, 장구, 북, 징 등 사물놀이 악기와 조선학교 설립에 관한 자료 등 우트로 주민이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애쓴 흔적도 전시장 한쪽을 채웠다. 기념 측은 개관을 기념해 우트로에서 살다 별세한 재일 조선인 1세의 사진과 이들이 생전에 남긴 말을 모아 기획 전시도 하고 있다.

### 한국 정부 자금 활용... 한일 양국 모금과 자원봉사 신청 쇄도

평화기념관 건설에는 약 2억엔(약 20억원)이 들었다.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출연했고, 기념관 운영을 위한 비용 모금에는 다수의 한일 양국 시민이 참여했다. 60명이 넘는 이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했다.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한 고령 여성이 현금 100만엔(약 1천만원)을 들고 찾아온 일도 있었다고 우트로민간기금 측은 소개했다.

2000년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우트로 마을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던 것에 비춰보면 주민용 아파트가 건설되고 한일 양측이 힘을 모아 기념관까지 개관하는 것은 재일 조선인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만하다.



곽진웅 민간기금 대표는 “평화기념관을 우트로의 역사뿐만 아니라 재일동포의 역사를 전하고 지역민과 교류하는 열린 커뮤니티 거점으로 운영해 평화의 상징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관 후 당분간 전시관 관람을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가와 아키키 우트로평화기념관 관장도 “우트로 마을을 지키는 데 있어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도 있었다”면서 “우트로의 조선인들이 심한 차별도 당했지만, 작은 기쁨도 함께 느끼며 마을을 만들었고 우리는 이 마을을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참\]](#)

1. 우트로평화기념관 내 우트로 마을 설명자료
2. 4월 30일 개관한 우트로평화기념관
3. 우트로평화기념관 개관 테이프컷팅 하는 참석자들
4. 재래식 펌프로 물 길어 빨래하는 우트로 마을 주민들의 모습 설명하는 다가와 아키키 우트로평화기념관 관장
5. 우트로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 내년 세계한상대회 미국 오렌지카운티서 열린다

## 사상 첫 해외 개최... 한상 운영위, 인프라 등 종합 고려해 결정

내년 세계한상대회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재단은 4월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제40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3년 '제21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미 오렌지 카운티를 최종 선정했다.

한상대회가 해외에서 열리는 것은 2002년 첫 대회 이래 처음이다. 한상대회 운영위원들은 이날 컨벤션센터, 호텔 등 시설 인프라, 동포사회와 현지 주류사회의 협력 가능성, 신청 단체의 대회 개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렌지 카운티를 내년 대회 장소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동포재단은 대회를 유치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황병구) 산하 뉴욕, 델러스, 애틀랜타, 오렌지카운티 등 총 4개 지역을 최근 현장 실사했고, 1차 내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로 오렌지 카운티와 델러스를 두 곳을 추천했다.

김성곤 동포재단 이사장은 "오렌지카운티는 미주에서 한인 역사가 오래됐고, 한인 상권도 발달해 있는 등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갖춰 대회 개최지로 손색이

없다"며 "현지 한상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 최초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대회를 유치한 노상일(52)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전시 컨벤션,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등 기존 포맷에다 한국문화 축제가 어우러진 세계한상대회를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한상 리딩 CEO 포럼과 국회-동포재단 공동 주최 세미나도 열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상 리딩CEO 포럼 회의가 열렸다. 한상 리딩CEO 포럼은 자본금 300만 달러 이상, 연 매출 3천만 달러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상 네트워크다.

이어 4월 7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외동포재단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 성장 방안 및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이란 주제 아래 공동 주최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세미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750만 재외동포 및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역할과 역량 점검, 경제외교에 필요한 제도·정책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세미나에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소속 의원들과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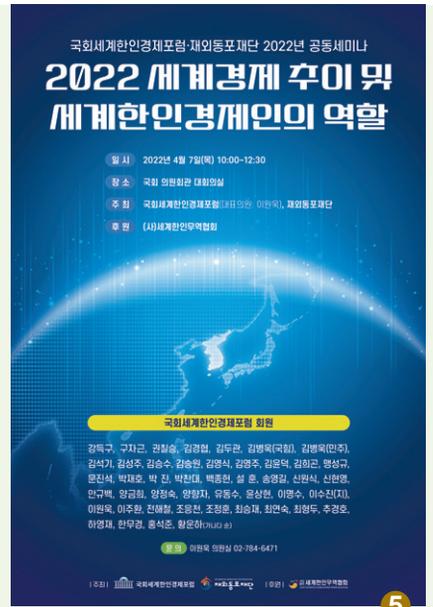
회에 참여한 해외지역 운영위원들, 한상 리딩 CEO 포럼 회원, 세계한인무역협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의 이원욱 대표는 개회사에서 “오늘날 시대적 핵심 가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에 있다”며 “이는 ESG라는 요소가 미래세대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성장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이후 재도약의 기회 마련에 절치부심 중”이라며 “국회포럼과 동포재단이 세계한인경제인에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 세계 전역에서 K-경제를 견인하는 한인 경제인의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동포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세계한인경제포럼 정기 세미나, 제40차 한상 리딩 CEO 포럼과 동시에 진행된다”면서 “여러분이 제시하는 통찰력과 비전은 차기 정부가 공약한 한상네트워크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동 세미나가 한민족이 경제·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1부 발제와 2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이금룡 무역경제신문 대표 이사는 “산업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제4의 물결은 ‘창조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디자인·엔터테인먼트 분야와 건강·친환경·뷰티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창조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원석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공동운영위원장(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은 ‘경제외교와 한상의 역할’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한상은 지난해 한국의 요소수 확보 지원에 나서는 등 경제외교의 선도자 역할을 했다”고 소개한 뒤 “공공외교를 통한 소프트파워 확대에 있어 한상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경제외교에 있어 한상의 참여 범위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부품 등 세계 공급



망 ▲디지털 플랫폼 ▲한류 콘텐츠 등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세미나 좌장인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윤영곤 로벌사이버대학교 시용합학과 교수, 이마태오 월드옥타 수석부회장,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회장, 김점배 제20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 이어 김현겸 미국 달라스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창**

1. 4월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40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2. 제40차 리딩 CEO 내부회의 장면
3. 국회와 공동 세미나 환영사 하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4. 국회-재외동포재단 공동 세미나 장면
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성장 방안 및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 세미나 안내 포스터

# 드라마 '파친코' 출연 재일3세 박소희 “내 정체성은 자이니치”

모자수 역 열연... “가족 역사와 닮아 자연스레 배역 몰입”



“저의 정체성은 한국인도, 한국계 일본인도 아닙니다. 자이니치일 뿐입니다.” 애플TV+가 제작한 드라마 '파친코'에서 모자수 역으로 출연한 재일동포 3세 박소희(47) 씨는 화상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 이렇게 강조했다. 재일동포를 의미하는 일본어인 '자이니치'(在日)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와 각종 차별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정체성을 지켜온 그들의 역사를 함축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도서인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온 가족의 4대에 걸친 연대기를 담았다. 이 드라마에서 그는 재일동포 2세로 등장한다. 선자(윤여정 분)의 아들이자 솔로몬(진하 분)의 아버지로, 파친코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나온다.

그는 “일종의 구슬치기로, 기계에 구슬을 넣어 당첨되면 많은 구슬을 딸 수 있고 이를 현금화하는 오락기가 파친코”라며 “누구나 즐기는 오락이지만, 사행성

이 강해 음지의 비즈니스로 취급받아 일본인들은 하지 않는 사업으로 재일동포들이 살기 위해 뛰어들었다”고 소개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 남은 재일동포들은 1965년 한일 국교 회복 전까지는 일본 정부가 국적을 '조선적(朝鮮籍)'으로 구분해 특별영주권자로 살아왔다. 단일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일본에서 이들은 제대로 된 취업을 하기 어려웠기에 한국식 불고깃집인 야키니쿠 등 요식업을 하거나, 사금융업 또는 파친코 등 유기업(遊技業)에 종사했다.

## “경계인으로 살지만, 자부심 잃지 않아... 재일동포 존재 알려 큰 보람”

박 씨는 “드라마 '파친코'는 재일동포의 삶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모자수 역할을 연기했지만 재일동포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했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소설 파친코의 저자인 이민진 씨와 친분이 있던 그는 이 씨가 재일동포의 삶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쓰겠다고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흔쾌히 응했다. 가족의 이야기와 자신의 성장 과정을 털어놓았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을 겪었던 지인들도 소개했다.



3

4

그의 조부는 경상북도 의성이 고향이다. 일본 서부지역인 니가타(新潟)현에서 태어난 박씨는 도쿄와 인근 지바(千葉)현에서 성장했다. 그의 부친은 재일동포 민족 신문인 '통일일보' 창간 멤버로 들어가 기자로 활동하다가 퇴사해 '아키니쿠'라는 잡지를 15년간 발행하면서 저널리스트이자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당시 재일동포는 차별을 피해 통명(通名)으로 일본식 이름을 쓰고 살았는데, 부친은 한국 이름을 고집했고 자녀들도 한국식 이름으로 살게 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학년이 바뀔 때마다 긴장해야 했다. 등교 첫날 한국식 이름에 수군거리며 놀리는 일본인 아이들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때로는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차별이 심한 일본을 벗어나 전 세계를 무대로 살아보고 싶은 꿈이 있던 그는 와세다 대학에서 무역을 전공했지만, 배우의 길을 택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게리 쿠퍼나 잉그리드 버그만 등이 할리우드 출연한 영화는 빼놓지 않고 볼 정도로 영화광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연극단에 오디션을 보고 들어갔다"고 했다.

일본에서 10여 년 연극, 영화 등에 출연하면서도 그는 고집스럽게 한국 이름을 썼다. 그러다가 2008년 영화 '라멘걸' 출연을 시작으로 미국에서의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그는 아라이 소지라는 일본 이름을 쓰고 있다.

그는 "미국에서 영화·드라마 등에 일본인 배역은 일본인을 쓰려는 경향이 강해서 재일동포 박소희로는 현장 오디션은커녕 서류심사에서부터 탈락했다"며 "일본식 통명을 써야 배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씩씩하게 웃었다.

소설 '파친코'가 발간되자 서점으로 달려간 그는 책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울었다고 한다. 재일동포로 힘겹게 살았던 조부모와 부모가 떠올랐고,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절절히 배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드라마 '파친코' 오디션에 도전했고 '모자수' 역을 따냈다. 극 중에서 파친코 점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구축한 모자수는 아들 '솔로몬'만은 차별 없는 기회의 땅인 미국에서 살라고 유학을 보낸다.

지난 3월 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카데미 박물관에서 열린 '파친코' 시사회에서 그는 가슴 양쪽에 한 반도와 일본 열도 배지를 달고 참석했다. 그는 "양쪽 국가에 속하면서도 또 경계인이기도 한 내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직접 만들어서 달았다"고 설명했다.

###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로 맺어진 전 세계 한인 친구들 큰 자산”

그는 2014년과 2017년에 재일동포재단 초청으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석했다. 그때 전 세계에서 참석한 한인 청년들과 교류하며 우정을 쌓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큰 자산이라고 자부한다.

애플TV+는 얼마 전 '파친코' 시즌2 제작을 발표했다. 박 씨는 시즌2에서도 모자수로 활약한다. 드라마 출연 덕분에 인지도가 올랐다는 그는 "각국의 재외동포 사회를 돌면서 이민 역사와 이들의 삶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 꿈"이라고 포부를 말했다. [\[장\]](#)

1. 드라마 '파친코'에서 모자수로 출연한 박소희
2. 드라마 '파친코' 홍보 포스터(애플TV+ 제공)
3. 2017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및 세계한인차세대네트워킹에 참석한 박소희 씨
4. 드라마 '파친코'의 한 장면(애플TV+ 제공)

# 한민족 정체성 상징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 역사성 지닌 문화이자 가족 공동체 안녕 기원 매개체



1



2

한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전통 생활관습이자 지식인 ‘한복 입기’가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예절이나 격식이 필요한 의례나 놀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통 의복인 한복(韓服)을 입고 향유하는 문화인 ‘한복 입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3월 24일 발표했다.

한복 입기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전승돼 역사성이 있는 문화이자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매개체라는 점에서 문화재 가치가 인정됐다. 또 역사학·미학·디자인·패션 등 여러 분야에서 학술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해 관련 지식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됐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평상시에는 서양식 옷을 입지만, 설과 추석 같은 명절 날이 되거나 돌잔치, 결혼식, 제사 등 의미 있는 의식을 치를 때는 한복을 입는다. 다만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가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향유되는 문화라는 사실을 고려해 ‘김치 담그기’, ‘떡 만들기’, ‘막걸리 빚기’ 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 일었던 논란과 한복 입기의 문화재 지정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한복 입기’의 문화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며 “이미 한복과 관련된 기술인 ‘침선장’이나 ‘누비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복은 바지와 저고리 혹은 치마와 저고리로 구성되며 웃고름이 있다. 보통 하의를 먼저 착용한 후 상의를 입는다. 한복의 기본 형태는 고구려 고분벽화, 신라 토우(土偶·흙으로 빚은 인물상) 같은 유물과 중국 역사서를 보면 삼국 시대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복은 고유한 복식 문화로 발전하다가 조선시대에 전형이 확립됐다. ‘한복’이라는 용어는 1876년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서양 의복과 구별하기 위해 쓴 것으로 짐작되나,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승정원일기’ 1881년 기록에 ‘조선의(朝鮮衣)’라는 표현이 나오고,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에 ‘한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1900년 ‘문관복장규칙’이 반포되면서 문관 예복이 양복으로 정해졌고, 이후 한복과 양복이 공존하는 의

1. 한복 입기
2. 한복 입고 예절교육 받는 초등학생들
3. 한복 짓는 모습
4. 김홍도 풍속화 속 한복 입은 사람들



3

복문화가 정착됐다.

근대화 이전에는 주부들이 바느질해서 한복을 만들고 수선했다. 명절에는 새로운 원단으로 '설빔'이나 '추석빔' 등을 지으면서 가족 건강을 기원했다. 갓난아기가 입는 배냇저고리는 되도록 아기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게 제작했고, 남자아이가 착용하는 오색 두루마기인 까치두루마기는 귀신을 물리치고 좋은 일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색동 소매를 붙였다.

혼례식에서 신부는 '녹의홍상' (綠衣紅裳)이라고 하는 연두색 저고리와 다홍색 치마를 입었고, 사망한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는 윤달에 미리 준비하면 장수한다고 인식되기도 했다. 수의는 가족이 화통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매듭을 짓지 않았다고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복은 형태가 간소화하고 의례복으로 용도가 축소됐지만, 예를 갖출 때 입는 옷이라는 근간은 유지되고 있다"며 "한복 입기는 우리 민족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복 입기'의 문화재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창**



4



'캐나다 스크린 어워드'서 남녀 주연상 받은 윤진희 (왼쪽), 이선형 씨(CBC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 캡처)

## '김씨네 편의점' 주연배우, 캐나다 스크린 어워드 수상 영예 '아빠' 이선형 · '엄마' 윤진희, 코미디 부문 남녀 주연상 받아

한인 배우들이 '캐나다 아카데미'로 불리는 2022년 캐나다 스크린 어워드(2022 Canadian Screen Awards)에서 코미디 부문 남녀 주연상의 영예를 안았다. 어워드 홈페이지(www.academy.ca)와 현지 CBC 방송 등에 따르면 두 주인공은 CBC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 (Kim's Convenience)에서 극중 '아빠' (Appa)로 출연한 이선형(현지명 폴 리)과 '엄마' (Umma)를 연기한 윤진희(현지명 진 윤)다.

이들은 4월 10일(현지시간) 열린 시상식에서 코미디 부문 남녀 주연상을 받았다. 이선형은 2011년 무대에 먼저 선보인 연극에서도 '아빠' 역을 맡았고, 시트콤 열연으로 2017년에도 '코미디 부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글로벌 강연 플랫폼 TED에서 '새로운 영역 탐색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윤진희는 1980년대 극작가 겸 배우로 활동하다 인종차별을 겪고 한때 배우 생활을 접기도 했다. 한인 극작가 최인섭의 권유로 '엄마'로 컴백했고, 2020년 이 시트콤으로 캐나다 영화·TV·라디오 아티스트연합(ACTRA)으로부터 우수상(Award of Excellence)을 받았다.

'김씨네 편의점'은 2016년 10월 4일 시즌 1을 시작해 2021년 4월 시즌 5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1980년대 토론토에 이민한 한인 김씨 가족이 편의점을 차려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재미있고 진솔한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물이다.

이 시트콤은 '아카데미 오브 캐네디언 시네마&텔레비전'이 주관하는 '2017 캐네디언 스크린 어워드'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고,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 일본 오사카 재일민단 고문 오룡호, 시 교육문화진흥공로상 수상 18년간 외국인주민시정책간담회 이끌며 다문화 공생에 앞장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재일민단)은 오사카부 재일민단 고문으로 히가시오사카(東大阪)시의 외국인주민시정책간담회 위원장인 오룡호 씨가 시로부터 교육문화진흥공로상을 받았다고 4월 6일 밝혔다.

오 고문은 2004년 시가 외국인 주민,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학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할 때 1기 위원으로 참여해 7기에 이르는 지금까지 위원으로 재직했다.

시는 오 고문이 2014년부터 위원장을 맡아 시 정책 안내문에 한국어어를 넣고 외국인 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정보 플라자'를 개설하는 등 외국인 권익 신장과 다문화 공생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해 상을 수여했다. 지난 2017년 한국 국적



주민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을 받았던 오 위원장은 이번이 두 번째 수상이다.

히가시오사카는 오사카부의 중심도시로 인구 50만 명에 외국인이 1만7천여 명이 살고 있다. 일본 내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 중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다.

오사카 재일민단 단장도 역임했던 그는 “히가시오사카는 외국인 주민의 80%가 재일동포로 중국, 베트남,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다”며 “외국인이 차별 없이 시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돕고, 재일동포 차세대도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시의 외국인주민정책 간담회 위원장인 오훈호 오사카 재일민단 고문(왼쪽)이 노다 요시카즈(野田義和) 시장으로부터 다문화 공생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문화진흥공로상을 받고 있다.(재일민단 제공)

## 한인 미 연방항소법원 판사 또 탄생 예고… 존 리 판사 상원 청문회 통과하면 제7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취임

미주 한인 역사상 또 한 명의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 1.5세로 미국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오른 존 리(54·한국명 이지훈) 시카고 연방법원 판사가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된 것이다.

시카고 트리뷴과 NBC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4월 13일 5명의 신임 연방 판사 지명자를 발표하면서 리 판사를 “제7 연방항소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했다. 리 판사가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판사에 취임한 지 10년 만이다.

리 판사는 1960년대 파독 광부였던 이선구 씨와 간호사 이화자 씨의 3남 중 장남으로 독일에서 태어났다. 생후 3개월 무렵 한국으로 보내져 5세 때까지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다.

그의 가족은 1970년대 초 미국 시카고로 이민, 시카고 북서부 교외 도시에 터를 잡았다. 현재 시카고 교외도시에 사는 리 판사는 의사인 부인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시카고에서 초·중·고교 시절을 보낸 리 씨는 하버드대학(1989년 졸업)을 거쳐 하버드 로스쿨(1992년 졸업)을 졸업했다. 그는 시카고 대형 로펌 ‘메이어 브라운’, ‘그리포 앤드 엘든’을 거쳐 ‘프리본 앤드 피터스’에서 반독점, 통상규제,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상업 분쟁 소송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연방법원 판사로 발탁됐다.

시카고에 소재한 제7 연방항소법원은 일리노이·위스콘신·인디애나 3개 주의 7개 지방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을 다룬다.

리 판사는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캘리포니아 제9 항소법원의 허버트 최(1916-2004·한국명 최영조) 판사와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 판사, 케네스 리 판사, 제2 연방항소법원의 마이클 박 판사에 이어 한인 출신 미 연방 고등법원 판사의 맥을 잇게 된다. 



미 연방 제7 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된 존 리 시카고 연방법원 판사



# 전주 경기전 조선 왕조가 일어난 ‘경사스러운 터’



**전**북 전주(全州)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본향(本鄕)이다. 전주 이씨의 시조는 통일신라 문성왕 때 사공(司空·도성을 쌓고 고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의 한 벼슬)을 지낸 이한(李翰)인데, 그로부터 태조의 고조부인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전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700여 채의 한옥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한옥마을이다. 한옥마을 중심에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왕의 초상)을 모신 경기전이 있다. 조선은 건국 후 한양을 비롯해 전주·영흥·경주·평양·개경 등 여섯 곳에 태조 어진을 봉안했다. 경기전(慶基殿)이라는 이름은 ‘왕조가 일어난 경사스러운 터’라는 의미다. 태종 10년(1410) 지어진 경기전은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 때 소실됐다가 광해군 6년(1614)에 중건됐다. 600여년 역사 경기전의 주요 관람거리를 소개한다.

## 태조 어진 모신 곳… ‘말에서 내릴지어다!’

경기전 정문(매표소) 앞에는 본래 홍살문(紅箭門) 옆에 있었던 하마비(下馬碑·전북 유형문화재 제222호)가 옮겨져 있다. 표석에는 태조의 어진을 모신 곳이기엔 지나가는 사람은 모두 말에서 내리

고 아무나 출입하지 말라는 ‘至此皆下馬 雜人毋得入’(지차개하마 잡인무득입)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 광해군 6년에 세워진 하마비는 일반 하마비와 다르게 판석 위에 비를 올리고 그 판석을 암수 한 쌍이 받치고 있는 독특한 형태다.

정문을 지나면 이곳이 성역임을 표하는 홍살문과 경기전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인 외신문, 정전으로 들어가는 내신문, 태조 어진이 봉안된 정전(正殿·보물 제1578호)이 일직선상에 있다.

정전 중앙의 감실에는 푸른 곤룡포에 임금만이 쓰는 모자인 익선관을 쓴 태조가 정면을 바라보고 용상에 앉아 있다. 경기전에 처음 모셔진 낡은 어진은 고종 9년(1872)에 물에 씻어서 백자 항아리에 담아 정전 북쪽에 묻었다. 현재 정전의 어진은 권오창 화백이 1999년 모사한 것으로 고종 때 모사한 태조 어진(국보 제317호)은 어진박물관 수장고에 옮겨져 있다.

## 조선왕조실록 보관하던 전주사고

경기전 동편 구역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국가 중요 서적을 보관하던 전주사고(全州史庫)가 있다. 199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국보 제151호)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총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그 분량이 1천893권 888책에 이르는 방대한 역사서다. 임진왜란 직전 전주사고에는 태조부터 명종까지의 실록,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 각종 문헌 총 1천344책이 보관돼 있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춘추관·충주·성주의 3대 사고의 실록은 모두 소실되고, 오직 전주사고본 실록만 유일하게 보존됐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경기전 참봉 오희길, 정읍 태인의 선비 손홍록과 안의 등이 태조 어진과 실록을 내장산으로 이안(移安)한 덕분이다. 왜란이 끝난 후 선조는 전주사고본을 저본으로 실록을 다시 출판해 한양 춘추관·강화도 정족산사고·평창 오대산사고·봉화 태백산사고·무주 적상산사고 등 5대 사고에 봉안했다. 전주사고본 실록은 정족산사고에 보관됐지만, 지금은 서울대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다. 전주사고는 1597년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던 것을 1991년 복원한 것이다.

### 국내 유일 임금 초상화 전문 '어진박물관'

경기전 북쪽에는 국내 유일의 왕 초상화 전문박물관인 어진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2010년 개관한 어진박물관은 지상 1층에 태조 어진을 모신 '어진실', 지하 1층에는 세종·영조 등의 어진이 있는 '어진실2', 어진을 봉안할 때 쓰였던 유물과 가마가 전시된 역사실과 가마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으로 구성됐다.

'어진실'에서는 청룡포 태조 어진, 홍룡포 태조 어진, 사진으로 남아 있는 영흥 준원전 태조 어진을 복원한 태조 어진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경기전 태조 어진은 수염이 흰 노년의 모습으로 덕 있는 군주 같은 느낌이 강하다. 태조의 초상화는 총 26점 있었으나 현재는 어진박물관이 소장한 태조 어진 1점만 남아 있다.

'어진실2'에는 세종, 영조, 정조, 철종, 고종, 순종의 어진이 전시돼 있다.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임금 중에서 현존하는 어진은 태조, 영조, 철종뿐이다. 세종과 정조 어진은 실제 모습이 아니라 추정해 그린 표준영정(국가 공인 영정)이고, 고종과 순종 어진은 사진을 보고 모사한 것이다.

'역사실'에는 경기전 건립, 태조 어진 봉안 과정, 태조 어진의 수난과 보존, 태조 어진의 관리, 경기전 제례 등 경기전의 역사와 함께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의 전주 문화유산이 소개돼 있다. [\[창\]](#)



2

1. 경기전 일대 전경
2. 태조 이성계 어진
3.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어진)이 봉안된 정전(正殿)
4. 1991년 복원된 전주사고(全州史庫)



3



4

# 미대생 미국 병사의 6·25 그림들... 70년 만에 ‘빛’

## 참전용사 스트링햄, 60여 점 한국전쟁유업재단에 기증

**미**국 캘리포니아미술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하던 22살 청년 병사는 틈만 나면 강원도의 산과 풍경, 미군 동료들의 생생한 모습, 다양한 작전 활동을 화폭에 담았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전선에서 구할 수 있었던 그림 도구는 맥주, 담배, 치약, 비누 등 보급품 상자 바닥에서 뜯어낸 종이와 연필 한 자루가 전부였다.

긴박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연필을 놓지 않은 것은 고향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부모님께 “나는 괜찮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편지를 부칠 때마다 한 장씩 동봉한 6·25 전쟁 스케치는 어느덧 60점을 넘었다. 모친은 아들의 스케치를 모아 1952년 샌프

란시스코의 한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병사의 집에서 잠자던 스케치와 그가 1952년 일본으로 재배치된 뒤 물감으로 다시 그린 수채화 등 6·25 전쟁을 다룬 작품 60여 점이 4월 9일(현지시간) 미 비영리단체인 한국전쟁유업재단(이하 유업재단)을 통해 70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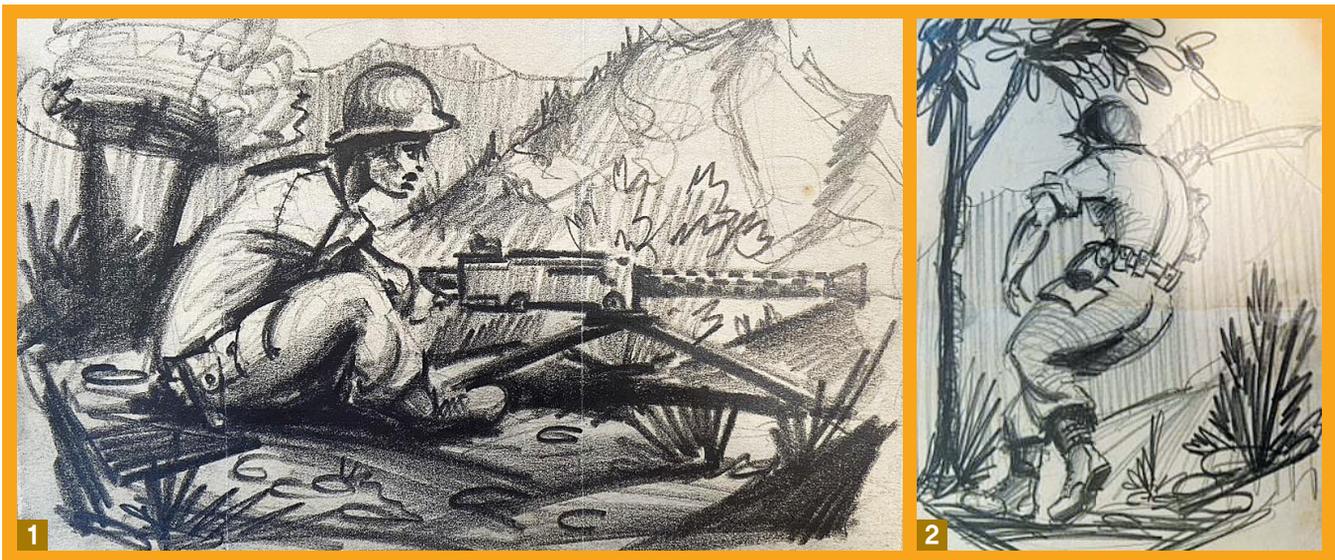
유업재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로저 스트링햄(93)의 작품들은 백병전, 참호전, 폭격기, 추락한 전투기, 야간 순찰, 병사들의 이동 등의 장면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한국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스트링햄의 말대로

전장 주변의 풍경에만 집중한 작품도 많다. 한국을 떠나면서 배에서 본 마지막 풍경들은 일본에서 여러 점의 수채화로 재탄생했다.

혼자 간직하던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기로 결심한 것은 현 거주지인 하와이에서 지난 2월 이뤄진 한중우 유업재단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였다.

국가보훈처의 지원으로 2012년부터 유엔 참전용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인 한 이사장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유해감식반 활동을 다루는 교육자료집 제작을 위해 하와이를 찾았다가 스트링햄과 처음 만났다. 마침 그림의 영구적인 보관 장소를 찾고 있



던 스트링햄은 유업재단 홈페이지에 한국전쟁 스케치와 수채화를 전부 옮겨놓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며 한 이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미 독립선언문과 헌법 등 4대 건국 문서에 모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인 로저 셔먼과 유명 수학자 워싱턴 어빙 스트링햄의 후손인 그는 6·25 발발 후 미 육군에 징집돼 21보병사단 24연대 본부중대 소속으로 1951년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

인천에 내린 뒤 건물 하나조차 보이지 않는 해변에서 갯벌을 걸어 이동하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강원도 화천호·금성 전투에 투입된 그와 동료 병사들은 혹독한 추위로 인한 동상으로 고생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듬해 3월 부대가 일본 센다이로 재배치되면서 한국을 떠난 스트링햄은 “센다이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한 일은 밖에 나가서 수채화용 종이와 물감을 산 것”이라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70년도 넘는 옛일이지만 스트링햄은 “아직도 악몽을 꾸다. 죽은 동료들을 찾는 그런 꿈을 꾸다”라고 말했다.

전쟁을 겪고 미국으로 돌아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전공을 바꿔 물리화학을 공부한 스트링햄은 100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쓴 상온핵융합의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다.

한국에서 열린 학회에도 여러 차례 초청받은 그는 “과거 완전히 부서진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너무 놀랐다”면서 “인천공항, 서울의 마천루, 교통 시스템을 보면서 ‘이건 믿을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이라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라고 감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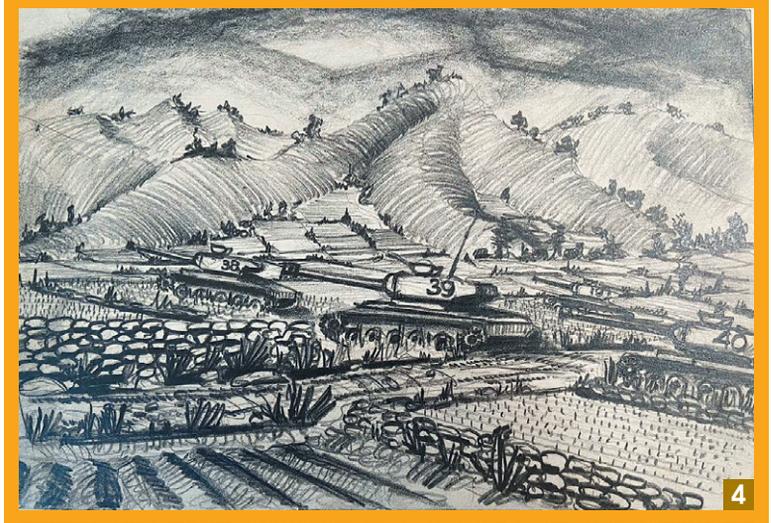
한편 6·25 참전 22개국 중 21개국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수집한 한 이사장은 4월 말 마지막 나라인 인도를 방문해 현지 참전용사들과 인터뷰할 예정이다.

한 이사장은 “참전용사 인터뷰를 교육자료집으로 만들어 전 세계 교사들에게 배포해 한국전쟁의 세계사적 의의와 한국의 전후 업적을 연구히 교육할 수 있는 공공 보존 외교의 자산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미국과 영국에 이어 나머지 20개국에서도 한국전쟁 자료집을 제작하고 각국 교사들을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

강건택 연합뉴스 뉴욕 특파원



3



4



5

1. '우리 부대 기관총수 앤턴' (이하 한국전쟁유업재단 제공)
2. '시아 확보를 위해 산꼭대기에서 나무 자르는 병사'
3. '아군 조명탄에 눈 속에 숨어있던 우리 위치가 노출'
4. '금성을 향해 진격하는 탱크들'
5. '냉각시스템 고장으로 착륙한 미군 P51 전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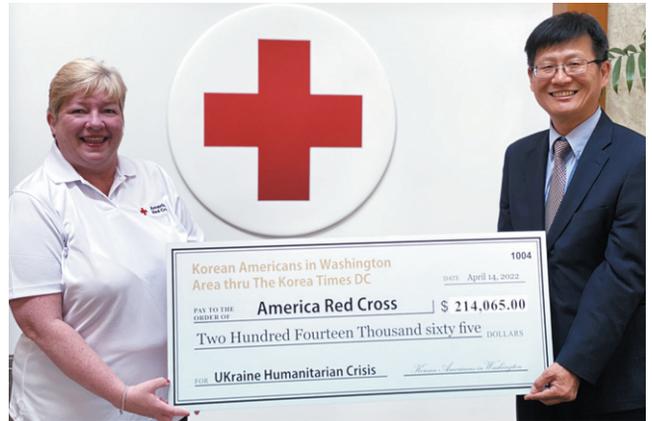
## 미 워싱턴DC 한인들, 우크라 성금 21만 달러 적십자에 전달

미국 수도 워싱턴DC 지역의 한인 동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위한 구호 기금 21만4천 달러(약 2억6천만 원)를 모금했다.

워싱턴 한국일보는 3월 4일(현지시간) 시작해 모은 성금 1차분을 4월 14일 미 적십자사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 캠페인에는 개인과 한인단체, 동문회, 종교계에서 2천여 명이 참여했다.

또 많은 개인이나 단체들이 짧은 편지나 메모를 동봉해 러시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성금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음식,약품, 옷, 주거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폴란드에 파견된 적십자사 직원을 통해 배분될 예정이다.



박태욱 워싱턴 한국일보 사장(오른쪽)이 4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적십자사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지부를 방문, 워싱턴DC 지역 한인 동포들이 모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구호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 재일민단, 연립여당 공명당에 '외국인 차별 금지'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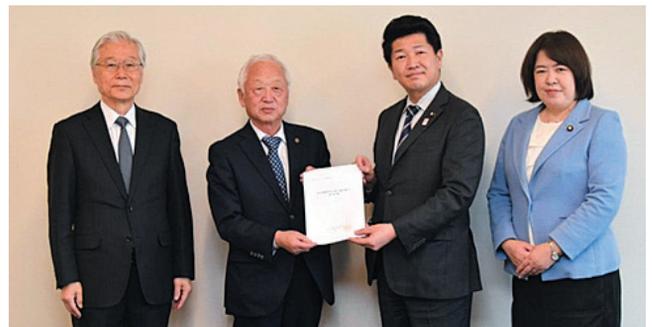
‘헤이트스피치 근절·지방참정권 부여’ 등 강조

재일동포 중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은 일본 공명당에 정주 외국인 차별 금지와 처우 개선에 나서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32석의 국회 중의원을 보유한 공명당은 자민당과 공조해 정권을 이끄는 연립여당이다.

여건이 민단 단장과 이우해 전 재일법조포럼 회장 등은 3월 17일 일본 도쿄 국회 중의원 제2의원회관을 방문해 공명당 소속 의원인 이시카와 히로시(石川寛) 오사카본부 대표와 이토 다카에(伊藤孝江) 중의원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민단은 아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요청서에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근절, 정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임용 시 국적 조항 철폐, 태평양전쟁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 보상, 일제강점기 이주자와 그 후손인 특별영주권자와 1980년대 이후 일본으로 건너온 영주권자 간 재입국 수속 동일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건이 단장은 “재일동포는 일본에서 정주 외국인의 처우 개선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왼쪽 두번째)이 3월 17일 일본 국회에서 이시카와 히로시 공명당 중의원에게 정주외국인 처우 개선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에 늘 앞장서 왔다”며 “현재 일본은 다양한 국적의 정주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시카와 의원은 “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중장기 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요청서 내용을 반영해 정주 외국인의 생활 향상을 돕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고려인마을,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자녀에 한국 적응 교육**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아)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웃 나라로 피란했다가 국내로 입국한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자녀의 모국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 적응 교육을 한다고 4월 18일 밝혔다.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은 1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학령기 자녀가 15명이다. 추가로 광주에 정착할 사람이 300~400여 명으로 예상돼 교육이 필요한 자녀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인마을은 이들의 모국 정착과 교육을 돕고자 마을 산하 기관인 청소년문화센터, 지역 아동센터, 대안학교 새날학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민주평통 말라위 분회, '한반도평화' K-팝 대회 개최**

동남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K-팝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프리카협의회 조용덕 말라위분회장은 한반도 평화를 알리기 위한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4월 23일(현지시간) 수도 릴롱웨의 대양대학교&대양누가병원 대강당에서 K-팝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20여 명의 경연자가 참가해 아리랑을 비롯해 한류 노래와 춤 솜씨를 선보였다. 이 자리에는 리처드 반다 말라위 문화체육부 장관, 릴롱웨 시장 대행, 시의원과 한인 등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행사장이 가득 차 주민들이 창밖에서도 관람했다고 조 분회장은 전했다.



**한국-카자흐 합작영화 '쓰리', 국내 고려인 동포 대상 시사회**

국내 고려인 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고려인비즈니스클럽(KBN)이 국내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카자흐스탄 합작 영화인 '쓰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의 시사회를 4월 10일과 17일 인천과 경기도 안산시에서 각각 개최했다. 고려인 4세인 박루슬란(41)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2020년 10월 열린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아시아의 재능 있는 신인 감독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취지로 제정된 '뉴 커런츠 상'을 받았다. 지난해 열린 제43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와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등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양국 합작 영화 최초로 카자흐스탄에서 개봉되기도 했다.

**유럽 한인들, 5월 말 터키 이스탄불서 체육대회 개최**

유럽 내 24개국 120개 한인회를 총괄하는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유제헌)가 5월 27~29일 사흘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2022년 유럽한인체육대회'를 연다. 터키한인회(회장 김영훈)가 주관하는 대회는 유럽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열렸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부터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국가별 축구 경기가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출전 선수는 반드시 한국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한인들, 뽀찌지역 초등생에 10년째 자전거 기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트남협의회(회장 박남중)가 호찌민에서 자동차로 약 3시간 거리인 뽀찌 지역 초등학교들에게 자전거 43대와 헬멧을 기증했다. 박남중 회장을 비롯해 박영희 여성분과위원장 등은 4월 15일 현지지를 찾아 뽀찌성 우호친선협회 등의 협력 아래 전달식을 진행했다. 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는 '자전거를 타고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달린다'는 염원을 담아 베트남의 어려운 지역을 방문, 현지 초등학생들에게 자전거와 헬멧을 기증하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올해가 10년째다.

한인회 · 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oc@okf.or.kr)로 보내주세요

# 재미동포 언론인 2명, '그레이시 어워드' 수상자에 선정

RFA 노정민 · 천소람 기자, 탈북 여성들 소재 심층보도물 제작 공로

**재**미동포 언론인 2명이 탈북여성을 다룬 보도물로 미국의 권위 있는 '그레이시 어워드'(Gracie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주인공은 자유아시아방송(RFA) 한국어 서비스 심층보도팀 노정민, 천소람 기자이다.

이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한 탈북여성들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라디오 심층 보도물로 오는 5월 24일 로스앤젤레스 비벌리힐셔호텔에서 미국 미디어재단여성연합(AWM)이 주는 이 상을 받는다. AWM은 4월 13일(현지 시간) '새로운 길을 개척한 탈북여성들의 여정'을 올해의 라디오 외국어 부문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정민 기자는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보도에서는 곁눈과 출산을 강요받는 가부장적 사회, 직업 선택과 외모까지 통제받는 북한 여성의 인권을 재조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동남아 제3국에서 만난 20대 탈북 여성 2명의 한국 정착 이야기, 2년간 평양에 거주했던 영국 외교관 부인과의 심층 인터뷰, 20대부터 50대 탈북 여성들의 증언 등을 통해 '1인 3역'에 허덕이는 북한 여성의 삶과 오늘날 당당하게 살고픈 그들의 욕구를 다각적으로 담아냈다고 소개했다.

노 기자는 "특히 희망 없는 삶이 싫어 북한을 떠나 한국에서 꿈을 이뤄가는 두 탈북 여성의 이야기를 담아내기까지 2년의 세월이 걸릴 정도로 작품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틀에 갇혀 있던 북한 여성들의 마음속에도 변화의 욕구가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번 수상으로 오늘날 북한 여성의 삶과 생각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47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레이시 어워드는 매년 TV, 라디오,



'그레이시 어워드' 수상한 노정민(왼쪽), 천소람 RFA 기자



재미동포 언론인의 '그레이시 어워드' 수상작 관련 이미지

케이블 등 언론 매체가 여성을 조명한 프로그램 중 최고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도 워싱턴포스트, CNN, ABC, NBC 등 미국 내 유명 언론사가 대거 참여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RFA는 미국 의회가 입법한 국제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방송국이다. 한국어 서비스는 뉴스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창**

# 해외입양인은 어떤 디아스포라에 속하는가?

1989년 4월 어느 날 햇살 밝은 아침이었다. 내가 집안을 하릴없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검고 큰 레트리버가 내게 다가와 거실로 나가는 문을 열라고 나를 재촉했다. 약간 두려웠지만 흥분된 마음으로 나는 개가 하자는 대로 했고, 우리는 곧 함께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러는 나의 앞에 불현듯 송네피오르의 전경이 펼쳐졌다.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나는 나도 모르게 “한강이다!”라고 중얼거렸다.

내 이름은 아이릭 하계네스(한국명 이동헌)다. 나는 노르웨이에서 자란 한국 입양인이다. 2010년 한국으로 돌아온 이래로, 나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했고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지금은 해외입양인연대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디아스포라’를 정의할 때 흔히 두 가지, 혹은 여러 개의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강요된 것인가, 자발적인가로 구분한다.

나를 비롯한 해외입양인들이 어떤 경우에 속할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15개국에 입양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이들은 의도치 않았으나 통계상 재외동포로 분류된다. 외모와 유전적인 면 이외에 한국과 어떠한 문화적 연결고리도 없는 우리 입양인들이, 이런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논의해볼 만하다. 인식의 고취라는 차원에서 5월 11일은 ‘입양의 날’로 지정되었고 매년 기념되고 있다.

1950년대 이래로 행해진 입양의 역사에 대해, 대체로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인들을 위한 인식 캠페인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누가, 언제, 왜 이들을 입양 보냈고, 그 과정에 관련된 기관들이 어떤 이익을 취했는가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논쟁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대화는 어떻게 시작하든



이동헌

해외입양인연대(GOA'L) 사무총장



필자의 어린시절 노르웨이에서의 모습

지 간에, 입양의 여러 측면을 망라하여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결국 정치적 논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해외입양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완전히 새로운 색깔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조명하고 싶다. 우리는 실제로 혈통 상 재외동포 한국인이다. 어쩌면 그렇게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입양된 나라를 대표한다. 어떤 입양인들은 자신이 성장한 환경에 너무나 익숙해서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하지만, 어떤 이들은 한국의 문화를 자신의 진정한 유산으로 끌어안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과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촉촉하게 훈제된 양고기와 산기슭 호수에서의 낚시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현재는 한국에서 사는, 전 세계로부터 온 수백 명의 다른 입양인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각기 다른 매우 다양한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한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작은 커뮤니티 같은 집단이다. 우리는 사랑과 안정감을 위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또는 반항하고 싶어 이곳에 온다. 우리가 입양된 나라로 돌아갈 때는 평안하거나, 분노에 차 있거나, 혼란스럽거나, 지친 상태일 것이다. 진정 우리는 ‘디아스포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독특하여 아직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전 세계 수백, 수천 명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한국에서의 일상을 위해 노르웨이의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나는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살았고,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단지, 내 삶을 풍성하게 해 줄 많은 경이로움이 펼쳐지길 나는 소망해 본다. **장**

## 손세주 전 뉴욕총영사 등 20명, 동포재단 자문위원에 위촉

재외동포재단은 4월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손세주 전 뉴욕총영사 등 2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원장,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김부용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부교수, 김수경 국립국제교육원 영어교육센터장, 김요진 브라질 태권도리그연맹 대표, 김웅기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HK 교수, 김점배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 변종덕 뉴욕 21희망재단 이사장,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장, 윤영곤 글로벌경영연구원장 등이 위촉됐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손세주 전 뉴욕총영사를 자문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김성곤 동포재단 이사장은 “제10기 자문위원은 지난 25년간 재외동포재단의 활동 성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재



제10기 재외동포재단 자문위원 위촉 장면

외동포 사회와 모국 간의 상생협력 관계가 더욱 견고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 동포재단 · 국립국어원,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내실화한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과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이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4월 5일 서울 강서구 국립국어원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라 두 기관은 전 세계 한글학교의 한국어 수업을 위한 콘텐츠 공유와 교육자료 개발 협력, 한글학교 교사의 한국어 교수 능력 제고, 한글학교 발전을 위한 협업 방안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식목일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처럼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을 더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이 더 발전하고 세계에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소원 원장은 “식목일에 심은 나무가 미래의 울창한 숲을 이루듯이 국립국어원과 재외동포재단의 업무 협약이 세계를 한국어로 푸르게 물들이는 울창한 숲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왼쪽)과 장소원 국립국어원 원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재외동포재단은 한글학교 교사의 한국어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한글학교 교사 인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사의 교수 능력을 인증할 프로그램(가칭 'K-teacher')을 개발했다.

## 재외동포재단, 각국 한글학교 임원과 간담회

재외동포재단이 휴교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 세계 한글학교협의회 관계자들과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 프로그램'을 통해 간담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글학교 운영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별 한글학교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간담회는 지역별 시차를 고려해 3월 15일, 22일, 31일 등 모두 3차례 진행됐다. 북미·중남미·아시아·대양주·유럽·독립국가연합(CIS)·아프리카·중동 등 협의회 임원과 관계자 3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교 학교가 증가하고 학생 수도 감소하는가 하면, 교사 수급 문제와 방역물품 구입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동포재단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특히 휴교한 학교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재단과 협의회 간 협력이 중요하며 "정기적으로 협의회 임원진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재단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곤 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차세대 동포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협의회와 재단 간 소통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한글학교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측과 각국 한글학교협의회 관계자들과의 화상 간담회

###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 재일 한인 문학의 어제와 오늘

김영미 / 한국문화사

재일 문학을 세대별로 분석하며 특성을 고찰할 수 있는 연구서가 발간됐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변화하는 재일 한인의 의식과 정체성에 대해 고뇌하는 재일 한인 문학의 전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재일 한인 2세들의 문학은 민족 차별과 사회로부터의 억압에 저항하며, 민족적인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3세대 재일 한인의 문학은 특수한 삶의 상황을 민족이나 집단의 문제보다,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뇌를 보여준다. 이로 인해 3세대 재일 한인 문학에서는 탈국적, 탈의식을 지향하는 의식이 나타나며, 경계인으로서의 혼란을 보여준다.



#### 어머니

강상중 / 사계절출판사

저자는 <어머니>를 통해 묵묵히 버텨온 재일 한인 2세들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고난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되며 이후 고국의 분단으로 고향과 연락마저 끊어진 채 망향의 슬픔만 삭힌다. 저자가 살았던 구마모토시에는 1천 명에 가까운 재일 한인들이 거주했으나, 이들의 역

사는 지역사에도 한국사에도 적지 않은 채 기억 속에서 잊히고 있다. 그들이 살았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그들의 삶과 역사를 후대에 전하고 싶다고 저자는 말한다. <어머니>는 저자의 자전적 요소가 강하게 담겨 있다.



#### 인기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일본어판)

서울셀렉션 / 일본 쇼카쿠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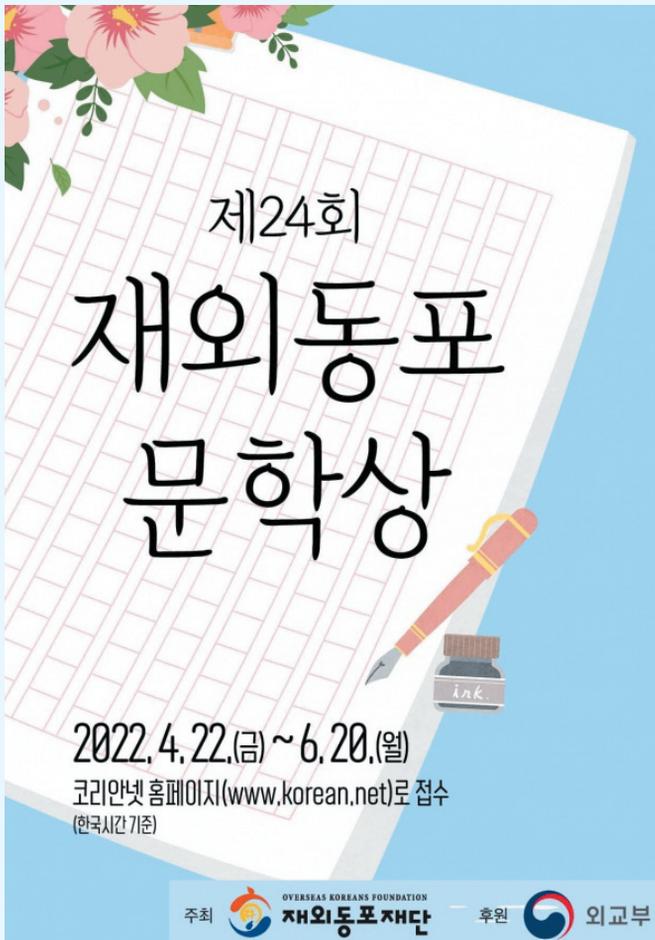
K-드라마의 인기가 일본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인기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2021. Learn Korean Through K-dramas)의 일본어판 <드라마로 한국어>가 최근 일본에서 발간됐다. 일본어판은 표지에 만화를 사용함으로써 일본 한류 드라마 팬들의 감성을 겨냥했다고 일본 출판사 쇼카쿠겐이 설명했다.



교재에 사용된 드라마는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쓸쓸하고 찬란하신 고개>, <호텔 델루나>, <사랑의 불시착> 등이다. 이 책의 오리지널 출판사인 서울셀렉션은 넷플릭스 등 주요 동영상 제공 사이트에서 한류 드라마 인기도를 고려해서 교재용 드라마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일본어판은 1권에 이어 2권도 발간될 예정이다.



## 2022 재외동포 문학상에 응모하세요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6월 20일까지 코리안넷(www.korean.net)을 통해 '제24회 재외동포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거주국 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7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재외동포(청소년 경우 5년)가 응모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시, 단편소설, 일반산문(수필·체험수기), 청소년은 중·고등과 초등 부문 글짓기, 입양한인은 입양 수기를 각각 응모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성인과 입양 한인 부문 총상금이 2천만원 늘어났고, 시, 수필, 체험수기 부문 수상자도 확대됐습니다. 한글학교 특별상은 청소년 부문 수상자와 본심 진출자를 많이 배출한 한글학교에 수여합니다.

재외동포문학상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한글문학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도 처음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54개국 635명의 동포가 1천321편의 작품을 응모했습니다.

### 공모 기간 및 수상작 선정, 시상 일정

- 4~6월: 작품 접수(2개월간)
- 7~8월: 수상자 선정
- 9~10월: 수상자 발표 및 수상작품집 제작
- 11~12월: 수상작품집 배포 및 관할공관 시상식 개최

### 2022년 4월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 김성곤 이사장

- 4월 5일: 재외동포재단-국립국어원 MOU 체결식 참석
- 4월 6~7일: 한상 운영위원회 참석
- 4월 8일: 제주 4·3 평화 걷기 참석
- 4월 15일: 제10기 재외동포재단 자문위원회 위촉식 참석
- 4월 19일: 한글학교 대륙별 협의회 '찾아가는 동포재단' 행사 참석
- 4월 21일: 차세대 동포 '찾아가는 동포 재단' 행사 참석



#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